

OG6)

꽃예술 소재로 활용 가능한 관경(觀莖)식물의 종류 및 특성

방식*, 안영희, 강귀옥

중앙대학교 식물응용과학과

1. 서 론

고등식물에 있어 줄기의 겉 표면을 표피라 하며 이 표피의 형태 및 색상, 질감의 다양한 특성은 식물의 분류 검색표는 물론 화훼로서의 관상가치를 지닌다(Ingels, 1997). 이와 같이 특이한 표피 특성에 의해 관상가치가 높은 식물을 관경식물(觀莖植物)이라 한다. 특히 목본성 식물의 경우에는 표피 조직에서의 세포수 증가와 노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목질화가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색상과 질감이 독특하게 변하는 식물들이 많다. 죽은 세포가 퇴화되어 이탈되면서 식물 종 특유의 질감 및 형태, 색채를 나타내는 목본성 식물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의 표피에는 이끼가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색상을 가진 표피를 보여주기도 한다.

최근 국민소득 수준의 증가와 더불어 꽃예술 분야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소재의 다양성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꽃예술 표현이 가능한 개성있는 식물소재의 개발이 매우 절실하다(Woodlands, 1991). 그러므로 근자에는 우리나라 자생식물뿐만 아니라 열대 및 아열대 원산의 식물들도 수입되어 꽃예술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미적 가치에 대한 분석 및 체계가 연구되지 않아 다채로운 꽃예술 표현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성있는 식물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관경식물을 발굴하고 체계화하여 금후 수준 높은 꽃예술 작품 표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식물의 검색

국내의 화훼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과거 유통된 적이 있는 약 556종의 화훼식물 소재 가운데 줄기의 관상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등관속식물 가운데 색채, 질감 등을 토대로 221종을 선발하여 색채별, 질감별로 구분하였다(박소영, 2007).

2.2. 관경식물의 분류

관경가치가 높은 221종의 식물을 대상으로 표피의 색채를 녹색, 은회색 및 회색, 백색, 노랑색 및 황색, 적색 및 갈색, 흑색, 복합색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질감에 의해서는 구불구불한 질감을 비롯하여 풀어져 말린 질감, 코르크 질감, 가시 등으로 구분하였다.

3. 결 과

3.1. 관경식물의 표피 색채별 구분

조사대상 관경성 식물 가운데 색채별 구분을 통해, 네군도단풍(*Acer negundo*)을 비롯한 34종의 유망식물이 조사되었다. 또한 은회색 및 회색 계열의 관경식물은 박달나무(*Betula schmidtii*)를 비롯하여 28종이 조사되었다. 백색 표피를 지니는 관경식물은 알로에라모시시마(*Aloe ramosissima*) 등 13종으로 나타났다. 황색 계통의 표피는 노랑대나무(*Phyllostachys aurea*) 등 14종으로 나타났다. 적색 계통의 표피는 매화오리나무(*Clethra barbineris*)를 비롯하여 48종으로 나타났다. 흑색계통은 월계수나무(*Laurus nobilis*)를 비롯하여 13종으로 조사되었다. 복합색 표피는 모과나무(*Chaenomeles sinensis*)를 비롯한 11종으로 조사되었다.

3.2. 관경식물의 표피 질감별 구분

관경식물의 관상가치가 표피의 질감특성이 풀어져 말린 모양의 식물이 등수국(*Hydrangea petiolaris*)를 비롯하여 22종으로 나타났다. 구불구불한 모양의 표피는 용버들(*Salix tortuosa*) 등 3종이 조사되었다. 코르크 질감의 식물은 화살나무(*Euonymus alatus*) 등의 14종이 조사되었다. 표피에 가시가 발달한 관경성 식물은 지리산오가피(*Acantopanax chiisanensis*) 등 21종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Ingels J. E, 1997, Ornamental Horticulture. Delmar Co.(U.S.A.)

박소영, 2007, 유통 식물명과 종류를 통한 한국 화훼시장의 문제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집.

Woodlands, D.W, 1991, Contemporary plant systematics, Prentice-Hill Inc.

Bang Sik, 2002, Bridal Bouquet, 방식꽃예술원.

土門康男, 2006, Flower Design Introduction, 講談社(日本).